

◆ 정부시책 ◆

공업기반기술사업 우수과제 選定

통상산업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중 기술의 난이도,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무역역조 개선 등을 평가해 추진실적이 뛰어난 12개 우수기술개발과제를 선정, 추가자금 지원 및 해당과제 연구 책임자에 대한 단기 해외연수 혜택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에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회사인 K&S社에 3%의 기술특허료 계약을 체결한 아남산업의 'Wafer 재정렬장치 개발', 산요·도시바 등의 전지에 뒤지지 않는 로케트 전기의 '소형 고성능 Ni-MH전지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세계 5번째로 개발한 복합 라인 생산능력을 갖춘 '복합방사 Line설계 및 제작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삼성포리머의 시공불량률이 1% 이하인 '건축용 일액형 폴리우레탄 소재개발',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공정집약형 CNC 선반개발', 경일대학교가 개발한 지퍼용 제작기, 한국엘피아의 발광소자용 에피웨이

퍼 양산기술 등도 각각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들 과제의 추진기업은 기존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이외에 최고 30억원(연리 6%, 3년거치 5년분할상환)까지의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단기해외연수 혜택도 받게 된다.

통산부는 이번에 우수과제로 선정된 12건의 과제들은 총 66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입, 1-3년간의 단기간에 개발한 과제들로 사업화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수입대체 850억원, 수출증대 46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은 국내산업의 공통적 핵심애로기술,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기술에 대해 무담보 무이자로 총 사업비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며 기술적 및 상업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을 경우 최장 3년, 최대 9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추진

통상산업부는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지분야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① 저렴하고 충분한 산업용지 공급, ②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 ③ 경쟁력있는 공장설립 지원 등 3개분야에 걸쳐 근본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하에 최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통산부는 업계, 학계, 연구기관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 3개분야에 걸쳐 17개 주요 정책이슈를 제기했는데,

첫째,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0.4%만이 공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기업에 저렴하게 충분한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비용요소 분석 및 비용절감방안
- 산지·구릉지, 국·공유지 및 새만금간척지 등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지를 산업용지로 개발·공급하는 방안
- 벤처산업등 첨단 및 지식집약산업의 도시화요구 추세를 수용하기 위한 입지지원방안 등 5개과제

둘째, 국내 총 생산의 46%가 수도권에 집

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성장주도산업을 어떻게 선정하며, 어떠한 입지지원정책으로 이들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입지지원시책 방향
- 지역 경제발전을 주도할 지역별 주도산업의 선정과 이의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방안
-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등 인센티브 강화방안 등 5개과제

셋째, 국내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산업 공동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행위가 토지·건축·환경관계법 등 50여개의 관련법률 저촉여부를 따져 공장설립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현재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
- 공장설립 승인시 농지전용 등 인·허가

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안

- 수도권내 공장설립 입지규제의 합리화 방안등 7개 과제를 중점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통산부는 이번 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8년 상반기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개정등 필요한 입법 조치를 거쳐 본격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 벤처기업 정의

- 매출액대비 R&D 비중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세액공제대상 기술개발비를 준용하였음.
- 추후 제도 운용과정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해 연구개발비의 범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비용을 통산부장관이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허권 등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의 정의에 필요한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의 기준을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규정

하였음.

- 다만, 창업중인 기업도 벤처로 허용해 주기 위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단계에 있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후 2년간은 주된 부분으로의 사업화로 간주
- 각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지원하고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신기술이용·지식집약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사업화의 기준도 특허권 등의 사업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 벤처기업의 지원시설의 범위

-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시설의 범위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보육업자,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으로 정하고

-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50% 이상을 차지함과 아울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해당 건축물 총 연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7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 벤처빌딩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는 벤처빌딩으로 지정을 하였어도 벤처빌딩으로 지정한 후 3년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상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벤처빌딩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통산부에 제출하고 벤처빌딩 지정·취소 그리고 입주현황을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산부에 통보하도록 하였음.

■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절차

- 법상 벤처기업 여부는 별도 확인절차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세무서·신용보증기관·증권업협회 등 벤처관련 시책담당기관들이 시책업무와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은 별도의 확인을 법상 요건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벤처과년 시책담당기관과 기업간에 벤처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통산부에 벤처여부에 대한 확인의뢰가 가능
- 이 경우, 기업이 통산부에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하였음.
-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경우에 필요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사업화의 판정기준인 해당 제품과 당해기업의 총 매출액은 공인회계사의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지원하고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신기술이용·지식집약사업)을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의 소관부처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받아 첨부토록 하였음.

제23회 전국 품질경영대회 개최

한 해 동안의 전 산업의 품질경영 활동성과를 총 결산하고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세계화 달성을 다짐하는 제23회 전국 품질경영대회가 11월 4일 관계인사와 수상자, 기업인 및 근로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품질경영을 범산업적으로 확산·보급시키기 위하여 지난 197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서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그해 품질경영활동에 기여한 공로자와 우수업체를 포상하고 한해를 결산하며, 한편으로는 다음 해의 품질혁신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다.

그동안 이 대회를 통해서 250개의 품질경영 우수기업, 1,724개의 우수분임조, 그리고 691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품질경영에 헌신하여 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74명의 유공자가 훈·포장 등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19개의 우수기업이 한국품질대상과 품질경영상 및 각종 부문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42개의 우수 분임조, 51명의 품질명장, 7명의 제안왕, 그리고 2개의 품질경영추진본부가 품질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품질관리는 1961년 공업표준화법의 제정과 1973년 공업진흥청의 발족과 함께 범산업적 실천운동으로 추진되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산업의 고도화와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공헌해 왔다.

그러나 최근 WTO체제 출범, OECD 가입, 전자상거래 확산 등에 따라 국경없는 경쟁시

대가 도래하였으며 소비자 욕구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라 우리 업계는 종래보다 한차원 높은 품질개선을 요구받고 있으며 앞으로 품질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만이 21세기 주역이 될 것이다.

미국도 '80년대 산업구조의 효율저하로 재정적자 1,000억불, 무역적자 1,000억불 등 소위 쌍둥이 적자 누증으로 세계경제 질서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치욕적인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부활을 내걸고 새로운 개념의 품질경영 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품질경영상과 유사한 MB상을 1987년에 제정하여 미국산업의 체질 개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등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시상식은 백악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거행하고 있다. 이러한 10년간의 묵묵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늘날과 같이 미국 경제를 희생시켰으며,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품질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번 제23회 전국 품질경영대회에서 수상한 전기관련업체 및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유공자 포상

〈석탑산업훈장〉

- LG산전(주) 기계CU/우택기 이사

〈대통령 표창〉

- 삼성전기(주)/이풍훈 부장
- LG산전(주)/김대균 부장
- 조일성업전기(주)/김영성 대표이사

- 삼성항공산업(주)/박부근 팀장

〈통상산업부장관 표창〉

- LG산전(주)/이강진 대리

〈한국표준협회장 표창〉

- LG산전(주)/김영옥 과장
- 삼성전기(주)/정재현 주임
- 계양전기(주)/김용대 사원

■ 품질분임조상

〈금상〉

- 일진전기공업(주)
- 한양전기공업(주)
- LG산전(주) 구미공장

〈동상〉

- 삼진변압기(주)
- 조일성업전기(주)
- 신한전기공업(주)

■ 품질명장

- LG산전(주)/김창호, 최병석, 안영근, 정성규
- 현대중공업(주)/이성배
- 삼성항공산업(주)/구영식, 이진완

■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상

〈중소기업 품질경영추진본부〉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본부장 김원복

〈모기업 품질경영추진본부〉

- 삼성전기(주) 본부장/이형도

■ 제안상

〈제안 우수상〉

- 삼성전기(주)/이용복

기술신용보증 특례 지원 확대

-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 요령을 개정했다.
-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우선 추천대상 확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의한 개발 성공품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
-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간이 신용조사 실시
 - 보증서 발급의 제고를 위해 별도심사 및 우선 추천시 신청기업에 대한 간이 신용조사 신설
-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 요령을 개정기로 하였다.
- 현행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 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6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신청시에는 신용도 등의 심사를 생략 간이심사로 대체하고, 6억원 초과 신청시는 정식심사항목중 기술개발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표상의 배점(25점)을 만점 처리하여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 우수기술·신기술 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NT, EM마크, 100PPM, ISO 9000 인증 등을 획득한 업체인 기업,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유망선진 중소기업,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가 1%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추천제도를 운영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여타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경우는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심사를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추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성공품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 수출액이 매출액대비의 50% 이상인 기업도 동 우선추천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 중소기업청장의 추천분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률을 제고하고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및 우선추천시 신청기업에 대한 간이신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간 협의·의견수렴후 최종 확정하여 금년 1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은 '9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131개 중소기업체에 대해 408억원을 지원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교육 개선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술혁신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97. 11월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 생산현장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술혁신관리자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기술혁신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혁신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고, 기술혁신 우수사례 및 기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순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 현재 지방청(사무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98년도부터는 지방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교육내용도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제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교육이수자들의 기술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설비를 활용토록 하며, 주요
- 애로기술과제에 대하여는 기술지도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선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96년부터 기술혁신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기술혁신교육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추진기법을 전수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이수한 9,7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이 기업현장에 복귀하여 기술혁신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내용의 전문성을 제고함에 역점을 두고 교육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생산현장의 기술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술혁신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술혁신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술혁신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고, 기술혁신 우수사례 및 기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지방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함과 아울러
- 교육내용도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제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교육이수자들의 기술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 및 설비를 활용토록 하며, 주요 애로기술과제에 대하여는 기술지도 대상선정 및 연구개발과제 추진시에 우선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방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재 공과대학의 고급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효과를 제고토록 할 것이다.

韓電, 잠정표준구매시방서 개정공포 안내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중인 잠정표준구매시방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 하오니 관련업부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시방서명 : 가스절연개폐장치(PS 150-578)
2. 공포일자 : 1997. 10. 27
3. 시행일자 : 공포일 이후 시행